

러시아 산업·에너지 동향 (2022.7.6.~20)

<주러시아대사관 경제과, 2022.7.20>

1. 주요 산업 동향

가. 만투로프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, 시장산업정책에서 기술주권 확보 정책으로의 전환 강조

-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은 부총리 겸직 승인을 위해 소집된 러시아 하원 비정기 회의(7.15) 참석 계기에 '시장 산업정책에서 기술주권 확보 정책으로의 전환'을 강조
 - 만투로프 장관은 서방 제재 대응차원의 기업지원 정부 조치들로 산업침체를 막을 수 있었고, 1~5월 누적 산업생산 2.8% 증가를 달성했으나, 철강·목재 분야 EU 제재로 서방 시장이 막히는 등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올해 산업 생산은 6% 감소를 전망함
 - 아울러, 핵심 부품·장비 공급을 위한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해 기업과 해외 상공회의소와 협력하고 있으며, 더불어 핵심 산업 내 외국부품의 국산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, ▲에너지·식량안보 확보와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우선과제로 강조함
- 미슈스틴 러 총리는 만투로프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자력·우주·항공·조선·전자·방산 및 우랄연방관구를 담당하게 된다고 소개
- (전문가 평가) 만투로프 장관의 부총리 겸직은 ▲러시아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과 병행수입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며, ▲경제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음

나. 해바라기유와 유박 수출쿼터 상향 조정

- 미슈스틴 러 총리는 '해바라기씨'유 수출쿼터를 기존 150만 톤→190만 톤

(40만 톤↑)으로 늘리고, '해바라기씨박' 수출쿼터를 기존 70만 톤→85만 톤(15만톤↑)으로 확대하는 정부시행령(2022.7.16.자, 제1282호)에 서명

- 러시아 정부는 해바라기유와 유박의 국내시장 공급이 충분한 만큼, 생산업자들의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조치라고 배경 설명
- 참고로 해바라기유와 유박 수출쿼터는 2022.4.15.~8.31까지 시행 중임

다. 북극·극동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2% 우대금리 지원 조건 완화

- 북극·극동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 조건 완화를 담은 러시아 정부 시행령(2022.7.14.자 제1257호)이 승인됨
 - 이전에는 현행 2% 우대금리 혜택 조건으로 10억 루블 이상 투자 및 250개 이상 일자리 창출 조건이 제시되었으나, 신규 시행령에는 투자액과 일자리 수에 대한 조건이 제외됨
 - 해당 우대금리 대출은 북극·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인프라 구축 및 생산 시설 건설을 위해 지원되고 있음

라. IT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

- 푸틴 대통령은 IT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러시아 세법 개정(2022.7.14.자 제321호)에 서명
 - 동 세법 개정은 2024.12.31.까지 IT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사회보장세 7.6%까지 인하*를 담고 있으며, ①소프트웨어 개발·지원·서비스 업종, ②온라인 플랫폼 광고업종, ③온라인 콘텐츠 유료 서비스업종, ④IT 하드웨어 개발·판매 업종 종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

* 러시아 일반 기업의 법인세는 20%이며, 사회보장세는 30%임

- 사자노프(A.Sazanov) 러 재무부 차관은 안덱스 택시·안덱스 택배 서비스 사업·금융기관의 IT 사업체 등은 이미 사업마진이 높은 바, 동 세제 혜택

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함

마. 2023년 러시아 사회기금(Russian Social Fund) 출범 계획

- 푸틴 대통령은 연기금과 사회보장기금 통합법(2022.7.14.자 제236호)에 서명
- 신규 기금 명칭은 '러시아 사회기금(Russian Social Fund)'으로 2023년 출범 계획
- 러시아 정부는 향후 러시아 국민이 연금·실업수당·산업재해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 수당 지불 창구가 일원화되어 국민편의 제고 및 조직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

바. 6월, 러 신차 판매량 82% 감소 (상반기 기준 57.5%↓)

- 6월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27,761대로 전년 동월대비 82%감소했으며, 상반기 누적 기준 37만 대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57.5% 감소함
- PWC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올해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76만~1백만 대 수준 예상으로 전년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함
- 현재 러시아에서는 Avtovaz社가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(ABS)·에어백·ER-Glonass 비상호출 모듈이 장착되지 않은 Lada Granta 모델을 생산 중이며, 이외 UAZ·가즈 그룹 상용차·중국 창청 자동차(Haval 브랜드)·Avtotor社만이 자동차 조립·생산을 하는 상황

사. 스웨덴계 엘렉트로룩스 프로페셔널社 및 H&M의 러시아 사업 철수 발표

- 엘렉트로룩스 프로페셔널社(Electrolux Professional, 스웨덴 가전업체)는 러시아 내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 사업을 현지 경영진에게 양도기로 결정했다고 발표(7.11)

- 알베르토 자나타(Alberto Zanata) CEO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 상황 하 중·장기적 차원에서 러시아에서 제품·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, 러시아 철수로 33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지만, 엘렉트로룩스 그룹 손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

※ 미국 가전업체인 월폴社(Indesit과 Hotpoint 브랜드 운영)는 러시아 공장 등 자산을 튀르키예 Arcelik社에 2.2억 유로에 매각기로 결정한 바 있음(6.28)

- H&M(스웨덴 대표 패션브랜드)은 러시아 내 사업을 전면 중단기로 결정했다고 발표(7.18)

- 사업애로 및 미래 불확실성 관련 철저한 검토 이후 현 상황을 감안하여 러시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헬레나 헬머손(Helena Helmersson) H&M 그룹 CEO가 밝힘

- H&M은 러시아 의류재고 소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며, 러시아 사업철수로 약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

※ H&M은 이미 3.2에 러시아 내 온·오프라인 의류판매를 중단한 바 있음

2. 주요 에너지 동향

가. 가즈프롬社, 최근 유럽向 가스공급 감축을 불가항력 상황으로 설명

- 가즈프롬社는 독일 주요 에너지업체인 Uniper와 RWE 등에 최근 가스공급 감축을 불가항력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서한(7.14)을 송부 (7.18자 블룸버그 통신 보도)

- 가즈프롬社는 서한에서 불가항력 상황은 6.14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

※ 가즈프롬社는 6.14(화) 독일 지멘스에 정비를 맡긴 가스송출설비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통한 공급 축소를 발표한바 있음

- 독일 Uniper측은 불가항력 상황 선언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

- 코메르상트紙 소식통은 가스공급 감축 관련, 손해배상 소송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

※ 가스프롬社は 2014-2015년 겨울 우크라이나로의 가스 역공급(reverse)을 막기 위해 계약 물량보다 적은 가스를 유럽에 공급한 바 있으며, 관련 손해배상을 지불한 바 있음

- 한편, 캐나다 정부는 노드스트림用 가스송출 설비의 독일 반출 허가를 결정(7.10)한 바 있으며, 가스프롬社は 해당 설비의 러시아 반입 허가 서류 제공을 독일 지멘스에 요청(7.15)한 상태

- 코메르상트紙 소식통에 따르면, 해당 설비가 7.17(일) 항공편으로 캐나다에서 독일로 보내졌으며, 7.24(일) 러시아에 도착할 예정

나. 토탈(Total Energies), 하라가(Kharyaga) 유전사업 지분 20% 무상 양도

-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토탈(Total Energies)은 하라가(Kharyaga) 유전사업* 지분 20%를 자루베쉬네프트(Zarubeshneft)*에 무상 양도기로 합의했다고 발표(7.6)

* 1995년 러 연방정부, 네네츠 자치구, 토탈 간 생산공유계약(Product sharing agreement) 체결 이후 유전 개발이 시작되었으며, 매장량 5천만 톤으로 2021년 150만 톤의 석유가 생산됨

** 올5월에는 노르웨이 에너지기업 Equinor가 동 사업 지분 30%를 자루베쉬네프트에 양도한바 있음

- 토탈은 사업자산 투자를 중단하는 대신 20% 지분을 무상 양도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, 하라가 유전사업의 자루베쉬네프트 지분은 90%에 달하게 됨

* 코메르상트紙

※ 토탈은 러시아에서 야말 LNG 20%, 북극 LNG2 10%, Terneneftegas 49% 지분을 유지하고 있음

다. 러 정부, 러시아産 원유거래 독자 플랫폼 구축위한 논의

- 올 10월 러시아산 원유거래 독자 플랫폼 구축을 위해 러시아 관계부처·기업·중앙은행이 관련 논의를 실시 (* 7.14자, 블룸버그 통신)

- 향후 러시아는 2023.3~7월 기준가격(벤치마크) 확립을 위해 충분한 거래량 확보, 러시아산 석유를 거래할 해외파트너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

- 현재 원유거래 플랫폼 구축 계획은 초기 논의 단계로 G7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추진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해석

- (전문가 평가) 러시아 석유의 벤치마크 확립으로 Platts나 Argus같은 외국 가격공시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나, 러시아産 석유 대금의 루블 지불 전환이 필요. 끝.